

「보험자본건전성
선진화 추진단」
제2차 회의

2019.6.27.(목) 14:00
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

모 두 말 씀

2019. 6. 27.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
손 병 두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- 안녕하십니까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.
 - 우선, 바쁘신 와중에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-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저금리·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(prolonged episode of low interest rate and low growth)되며 금융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
 - 올해 4월 IMF가 지난 2년간의 경기 확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향후에도 저금리·저성장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특히, 보험산업은 자산·부채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저금리·저성장 상황에서 리스크에 더욱 취약합니다.
 - 주요국의 낮은 금리는 보험사의 운용수익률 악화 및 지급능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으며,
 - 선진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는 신규 보험수요 축소와 보험사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- 세계보험감독자협의회(IAIS)*는 보험사가 축적된 리스크와 금융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,
 - *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
 -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(G-SII) 등에 대한 공통 자본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 - EU는 '16년부터 기존 자본건전성 제도를 개선한 Solvency II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, 캐나다·호주 등도 리스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 관련 건전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.
 - '09년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(RBC)를 도입하여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교하게 평가하도록 하고,
 - '14년 RBC제도를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.
 - 최근에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서 각 보험사의 회계·계리 시스템이 차질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작년 11월 출범한 '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'을 통해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, 여러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화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.
 - 최근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금리연동형 상품을 확대*하는 등 자산·부채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으며,
 - * 생명보험사 금리연동형 상품 비중(보험료 적립금 기준) :
55.7%('14말) → 57.8%('16말) → 58.7%('18말)
 - 유상증자,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*도 지속하고 있습니다.
 - * '18년중 자본 확충 규모 : 생명보험사 3.3조원, 손해보험사 1.4조원
- 다만, 보험사 자산·부채 특성상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는 규모 및 만기 불일치 수준이 큰 상황으로
 - 국내 자본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산·부채 구조조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적절한 자본건전성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.
 - 자본건전성 제도가 지나치게 완화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나,
 - 과도한 수준을 요구할 경우 추가 자본 보유를 위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.
- 특히,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.
 - 먼저, 수범자인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.
 -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,
 -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.
 - 또한,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과 국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전성의 역설(paradox of prudence)*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* Markus Brunnermeier & Yuliy Sannikov(경제 학자, 美 프린스턴大)

- 개별 회사가 리스크 익스포저를 축소하여 미시건전성을 확보(micro-prudent)하는 경우,
- 그 파급효과로 유동성 악순환(liquidity spiral)·디플레이션 악순환(deflationary spiral) 등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(macro-imprudent)되는 현상

- 지나친 제도 강화가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를 증폭*시켜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

* '19.5말 기준 151.3조원 보유(총 잔액 633.3조원의 약 24%)

- '개인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사적 안전망'으로서의 보험사 고유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○ 마지막으로, 주요국의 제도개선 논의를 고려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.

- 현재 보험산업에 대한 건전성 제도가 국가별로 상이하여 국가간 규제차익 기회가 존재하는 상황으로,

- 규모나 영향력이 글로벌 대형사에 미치지 못하는* 국내 보험사에 동일 수준의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
* 9개사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로 지정되어 있으며, 우리나라 소재 회사는 없음

- 각국 규제대상·수준과의 상세한 비교를 통해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상응하는 제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.

□ 이에 따라, 향후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을 다음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.

○ IFRS17 시행시기('22년 예정)에 맞춰 자산·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건전성 제도 도입을 추진하되,

○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○ 이 과정에서 ❶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, ❷국내 자본·외환시장 여건, ❸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할 예정입니다.

- 최근 보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동반된 보험상품* 및 산업 구조**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

* 온디맨드·소액보험과 같은 신상품 확대,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리스크·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등 새로운 보장대상 등장 등

** 판매채널의 디지털화, 가격경쟁 심화 등

- 이러한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리스크 관리능력과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,
 - 보험사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체적인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합니다.
- 정부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자본건전성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,
- 금리 딜레마* 상황에 처한 보험사가 자산·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- * 저금리 장기화 → 자산·부채 mismatch 경감을 위한 보험사 국채투자 증가 → 추가 금리하락 압력 → 제한된 자산운용 수단으로 인한 보험사 추가 국채투자
-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개선 및 보험사의 자본확충은 보험업권,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만큼,
- 금일 참석하신 관계기관 및 업계, 학계 관계자들께서 여러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감사합니다.